

경산 속살을 즐기는 다섯가지 방법



반곡지는 300년 수령의 오래된 버드나무들이 심겨 있어 사진 촬영하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다. 나뭇가지가 물에 비친 모습은 제각각 매력을 뽐내듯 여러 색깔로 반영된다.

경북 '경산 5경'

경산시만큼 문화유산을 풍부히 갖고 있는 곳도 드물다. '삼성현'으로 불리는 곳에 훌륭한 선조들이 살았고, 대형 저수지로 인해 흉작도 없었으며, 소원을 들어준다는 깃바위는 입장객이 서울 주요 사찰의 수백 배에 이른다. 대중이 몰려서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경산 5경'이다.

소원 들어주는 '깃바위' 사시사철 복적 '지인 계정숲' 우거진 숲속에서 힐링~ '삼성현' 원효대사·설총·일연 탄생지 '반곡지' 300살 버드나무 '인증샷 명소' '남매지' 남매 애뜻한 사연 품은 호수공원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깃바위
경북 경산시 와촌면 깃바위로 681-55. 주차장에서 40분을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평소에도 사람 많기로 유명하지만, 입시 철에는 줄을 서서 등산로를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간절히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소원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전국의 차량 내비게이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산에서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바로 깃바위다. 다만 이곳이 팔공산에 있어, 외지인은 '팔공산 깃바위'로 부르고 행정 구역상 경산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는 팔공산 관봉석조 여래좌상(보물 제431호)이 있다. 팔공산 관봉에 있는 높이 약6m의 석조여래좌상으로 머리 위에 자연 판석을 쓰고 있어 '깃바위 부처'라고도 불린다.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전설의 유래가 이 불상에서 나왔다. 경산의 대표 축제인 '소원성취'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 깃바위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어울려 정성껏 빌면 한 가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대형 이벤트는 매년 6월에 깃바위 공영주차장에서 열린다.

◇힐링의 명소 지인 계정숲
천연 숲을 찾아 마음이 평온해지는 힐링을 하고 싶다면 지인 계정숲은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경북 경산시 지인면 계정길 68에 위치한 이곳은 평지에 가까운 숲으로 우거져 있어 이동 간 수고를 덜어 줄 뿐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저절로 명상이 유도되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곳은 굴참나무, 이팝나무, 참느릅나무 등 명상에 도움되는 나무들이 주 서식지로 자리하고 있다. 균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어, 계절별 온도 차이를 최소화 한다.
이곳에선 매년 6월경 '경산지인 단오제'가 열린다. 지인 지역에서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지인단오제는 왜구로부터 지역을 지켜낸 한(韓) 장군과 오누이를 기리는 행사다. 한 장군은 9세기 전후 왜구들이 자신의 도천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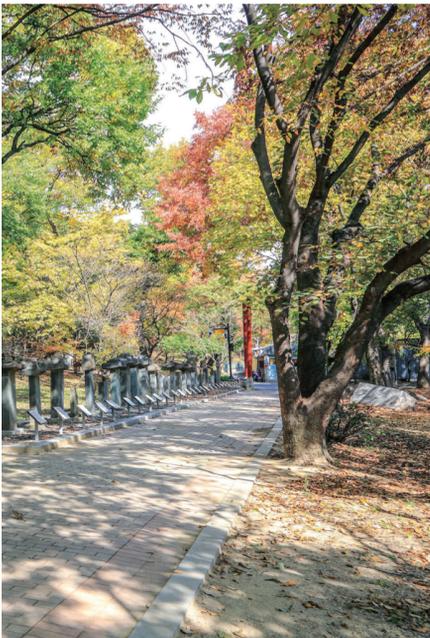
성을 쌓고 살면서 주민들을 괴롭히자 누이와 함께 꽃 관을 쓰고 춤을 추면서 유인해 섬멸한 인물로 전해진다. 당시 한 장군이 여장을 하고 추었던 춤을 여원무 혹은 한 장군놀이라고 한다. 단오제는 경산시 대형 축제로 발전했으며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삼성현은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고 많은 양의 저술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원효대사, 한국 유학의 종주로 추앙받으며 이두를 집대성한 설총 선생 그리고 역사, 신화, 향가 등 한국학 연구의 보고인 삼국유사를 저술한 고려 시대의 국사 일연선사를 일컫는다. 세 명 모두 경산에서 탄생하고 역사적 근원을 두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세 분 성현의 훌륭한 정신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꾸민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 공간인 동시에 도심 속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을 선사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세 분 성현의 업적과 사상을 조사·연구·전승하기 위해 2015년 4월 30일에 개관했다.
삼성현에 대한 자료를 상설 전시하고 있는 이곳은 매년 특별한 주제의 기획전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문화관 건물 옆에는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장이 있어 원효의 정신을 디지털 미디어로 체험하며 즐길 수 있다. 레일썰매장, 경산국제클라이밍장, VR체험관, 국궁장과 같은 시설도 있어 체력 증진과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사진 촬영하기 좋은 명소 반곡지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반곡리 246에 위치한 반곡지는 300년 수령의 오래된 버드나무들이 심겨 있어 사진 촬영하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다.
2011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진찍기 좋은 녹색 명소'로 선정됐고, 2013년 10월에는 안전행정부의 '우리마을 향토자원 Best 3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나뭇가

지가 물에 비친 모습은 제각각 매력을 뽐내듯 여러 색깔로 반영된다. 해마다 4월에는 복사꽃이 한창일 때에는 복사꽃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곳은 알려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대략 6-7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곳이다. 카메라를 들고 작품을 찍으려는 사람들이라면 들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유명한 저수지다.
특히 복사꽃 만개하는 4월에는 지정 '작가분'들의 치열한 경쟁장이 되는 곳이다.
영상 작품들의 배경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SNS 대박이 난 곳인데 드라마 '아랑사또전', '대왕의 꿈', 영화 '허삼관' 등 촬영지로 유명하다.

◇애뜻한 전설이 있는 남매지
경산의 대표적인 호수공원으로 2.4km의 수변산책로를 걸으며 운동과 휴식, 자연관찰을 할 수 있다. 음악에 맞춰 분수쇼를 펼치는 음악분수가 설치돼 있다. 이 외에 연꽃식물원, 운동시설, 관찰학습원, 수상광장, 남매광장, 물놀이장 시설이 있어 여름철이면 특히 어린이들로 붐빈다.
남매지란 이름이 붙게된 데는 애뜻한 전설이 있다. 조선 선조 때 경산시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오누이와 눈먼 홀어머니 세 식구가 가난하나 정답게 살았다. 누이동생은 오빠를 출세시키고 아버지의 한도 풀어 드려야겠다고 황부자 집에 식모살이 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구해 오빠를 한양으로 보냈다.
한양 간 아들은 장원급제 후 그리던 고향으로 금의환향했으나 호감시키려던 어머니와 기뻐해 줄 누이동생을 억울하게 잃고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렸다. 그는 황부자 아들의 비행을 상소하는 글을 남긴 채, 달 밝은 밤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잠든 연못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불쌍한 오누이를 기리기 위해 이 못을 '남매지'로 불렀다는 이야기다. /매일신문 박상진 기자 psj@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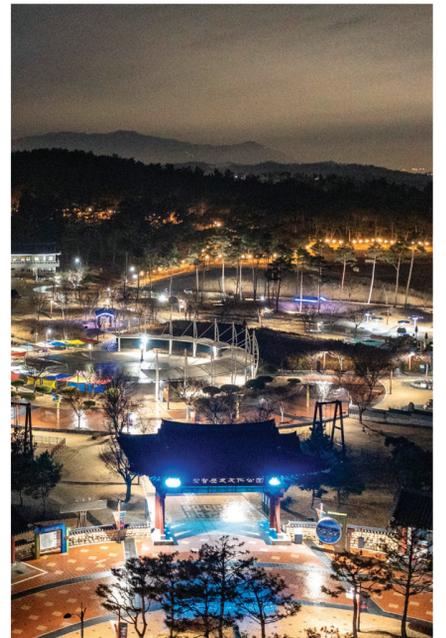
지인계정숲



깃바위



남매지



삼성현